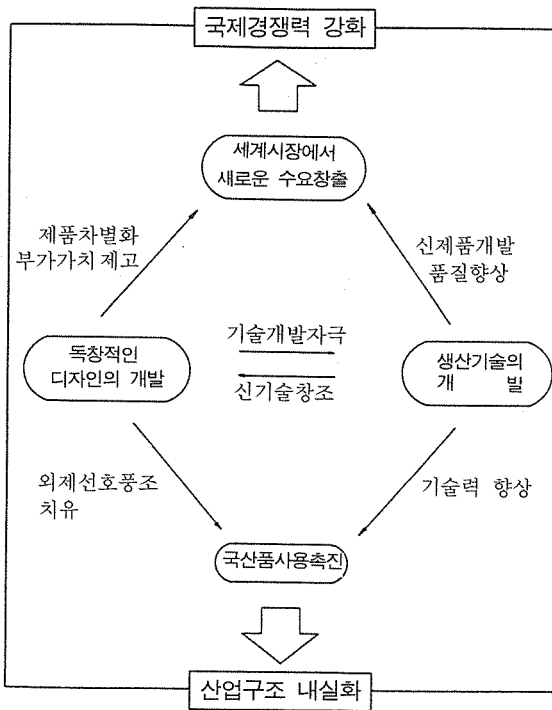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II)

상 공 부

1. 산업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조명



도국과 대등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 후발개도국 보다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디자인 및 품질수준이 가격경쟁력의 열위를 보전하지 못해 일본은 물론 선발개도국에 비해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자인 및 품질면에서 가격면의 열세를 충분히 극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디자인 수준은 일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고 정밀기계, 자동차, 섬유제품, 문구, 악기 등 경공업 제품부터 중화학제품 까지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주변국 상품과의 가격, 품질, 디자인 수준 비교>

구 분	가격수준	품질수준	디자인수준	경쟁력수준
일 본	125.7	123.0	125.1	122.4
한 국	100.0	100.0	100.0	100.0
선발 개도국	93.4	97.3	98.0	101.9
후발 개도국	77.0	80.1	79.1	82.2

* 자료 : 무역협회 수출산업 실태조사보고('92.5)

<기술수준 및 디자인 개발형태 비교>

기술수준 (선진국=100)	조립 및 가공기술	디자인 및 포장기술	융접 도금 등 생산기반기술	설계기술
	76	73	71	65
디자인 개발형태(%)	자체개발	기술도입	바이어 요구	모방
	25	9	50	16

* 자료 : 상공부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90.7 및 무역협회 수출산업 실태조사보고 '92.5)

2.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실태 및 문제점

1) 수출경쟁력

독자적인 디자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업계, 학계, 정부 등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일본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 싱가포르 등 선발개

있다.

2) 디자인 기술

우리나라의 디자인 포장기술은 생산기반기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고 '87년 이후 생산기술개발지원은 대폭 강화된 반면 디자인개발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디자인 기술 개발도 모방이나 바이어 요구에 의한 OEM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디자인기술 개발을 위한 독창적 상품기획능력 및 정보활용은 매우 취약하다.

3) 디자인전문업체

디자인 관련 용역업체(600여개)의 대부분이 광고, 인테리어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는 25개 업체(4%)에 불과하다.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도 자본금, 전문디자인사 이너, 종업원 규모면에서 소기업 수준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디자인용역업체 3,000개, 제품디자인전문회사 300개)에 비해 규모 및 수준면에서의 현격한 격차가 있다.

30대 대기업중 17개 업체만이 가전제품, 자동차, 섬유, 화장품, 조미료 등 일부분야에 국

한하여 제품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4)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가. 업계의 시각

산업디자인을 형태, 색상 등 제품의 외형적 처리로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의 산업디자인은 기능적 편의성을 중시, 제품의 설계 및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주, 중간관리층이 제품디자인을 제품생산의 부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디자이너 육성 및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디자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도 저조하며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금형비 부담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액의 1%미만을 디자인 연구개발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일본, 미국, 유럽 등에 파견하여 현지 디자인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외의 디자인개발 정보에 소홀한 면이 있다.

나. 정부의 시각

산업디자인은 가격 경쟁력을 만회할 수 있는 핵심요소기술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

<외국의 디자인 지원 정책>

구 분	한 국	외 국
디자인 전문회사	600개	일본 : 3,000개 영국 : 2,000개 미국 : 1,000개 (연구소 900개 별도)
디자인 진흥기금	'91 : 14억원	영국 ('90) : 1,440억원 대만 ('91) : 250억원 ('95년까지 1,243억원 조성)
디자인 개발 세금공제	서비스업으로 분류 세제상 혜택 없음	대만 : 고유 브랜드 개발 투자를 R&D로 간주 세금공제
산업디자인 연구 진흥기관에 대한 정부보조 ('90년 기준)	디자인 포장개발원 5억원 (22%)	영국 (Design Council) : 92억원(34.6%) 독일 (디자인협의회) : 46억원(67.0%) 프랑스 (산업디자인센터) : 51억원(100%) 인도 (국립디자인연구소) : 50억원(100%) 스리랑카 (국립디자인센터) : 20억원(100%)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 : 14억원(40%)

* ()는 기관예산에 대한 정부의 보조비율

책적 지원이 미흡하며 수출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70년 디자인포장센터를 설립하였으나 타 분야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D.P 센터를 지도 감독할 주무과가 8차례 변경)되고 있다. 산업디자인, 포장진흥기금도 D.P센터가 '86년 말 자체적으로 23억원을 조성하였으나 '91말 현재 14억원으로 격감된 상태이며 '87년이후 기술개발 투자비 지원이 2억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산업디자인 부문이 서비스업만으로 분류되어 금융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대한 국고보조가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에 비해서도 저조하다.

3.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가.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

○ 기능

- 산업디자인발전5개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2) 추진일정

-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문

○ 구성

- 위원장 : 상공부차관

- 위 원 : 총리실, 경제기획원, 교육부, 문화부, 상공부, 교통부, 과기처, 공진청 특허청 등 국장급 및 주요 경제단체 임원 20명

나. 산업디자인포장진흥 민간협의회

○ 기능

- 정부정책수립 자문 및 건의
- 현안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 구성

- 디자인관련학계,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디자인전문회사 및 업계, 시험연구소 등 15명 이내
- 사무국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산업디자인발전5개년계획의 집행 및 수시점검

주요 사업	추진 일정						협조 기관
	'92	'93	'94	'95	'96	'97	
○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수립							관계부처
○ 독창적 디자인 중점개발							
- 산업디자인기술개발 과제발굴							과기처 KOTRA. 무역협회 교육부
- 독창적 모델 개발							
-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							
○ 기업의 독자적 개발 기반 조성							EPB.과기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육성							
- 정보유통체제 구축							
- 전문인력 양성							총리실 관계부처 및 언론계
○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추진							
- 공동기술개발 추진 및 해외전문가 초정 연수							
○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환							EPB.재무부. 경제단체
- 디자인주간 선포							
- 범국민운동 전개							
○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 조성							